

도요타, 미국서 연내 항공기용엔진 형식증명 취득

도요타자동차의 고위관계자는 8월 23일, 미국의 항공기엔진 관련메이커인 하밀튼 스탠다드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소형 항공기용 엔진의 형식증명을 연내 미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 이외의 신규 사업분야를 모색하고 있는 도요타가 형식증명을 취득하게 되면 항공기 제조분야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공동개발한 엔진은 최고급차 셀시오에 탑재하고 있는 V형8기통(배기량 4000CC)을 기초로 개량해 지난 93년봄 형식증명의 승인을 신청했다.

도요타는 이미 소형 비행기의 판매, 운항등을 다루는 일본 flying 서비스(도쿄)와 pilot를 양성하는 air flight저펜(훗카이도)를 설립하고 있다.

日통산성, 소형항공기엔진개발 지원에 약9억엔 요구

일본 통산성은 9월 4일 항공기 공업심의회를 열어 항공기 개발 연구 등에 관한 1996년도 예산요구에 대해 설명, 승낙을 얻었다. 요구액은 총1백17억7천4백만엔으로 전년도대비 86% 증가했다.

이 중 70석급의 소형 민간수송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보급 등 신규로 8억8천3백만엔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소형기용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미·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으로 구성된 일본항공기엔진협회가 참가해 개발비의 약30%를 부담하고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고압압축기를 개발한다. 개발하는 캐나다제 소형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형민간수송기(YSX)의 개발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 개발지원비는 계상을 보류했음을 보고했다.

포커, 항공기 생산시설 이전 검토

네델란드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포커(Fokker NV)사는 동사의 주식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방안

의 일환으로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의 주식이 2길더가 하락한 5.6길더까지 하락되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이다.

포커의 재무상황은 특히 심각하고, 95년 상반기(1-6월)의 순손익은 6억5천1백만길다(약 3천1백24억원)의 손실과, 94년 연간 순손실(4억5천만길다)을 대폭 상회했다.

일본, 초음속여객기(SST) 개발조사팀 모임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차세대 초음속여객기(SST)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업회는 초음속수송기개발조사위원회를 설치, 9월 6일 처음 모임을 가졌다. 2002년쯤 시작될 예정인 SST의 국제공동개발에서, 일본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분야의 조사나 기술개발을 7년동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가와사키중공업 등 항공기메이커 외에, 일본항공, 줄일본空輸도 참가하고 있다.

삼성항공, 필리핀 군용기 엔진 창정비 계약 체결

삼성항공이 필리핀 공군의 대형수송기 C130에 장착되는 T56 엔진을 창정비(廠整備)한다.

9월 4일 니카시오 피로드리게즈 필리핀 공군사령관과 유무성(柳武成) 삼성항공엔진 총괄부사장은 필리핀 현지에서 계약금 5백만달러 상당의 이번 창정비 계약에 서명했다.

T56엔진은 미국 항공엔진메이커인 엘리슨사가 제작한 것으로 삼성항공은 지난 4월 이 회사로부터 아시아지역 하자보증 지정업체로 인증받았다.

이와 함께 삼성항공은 필리핀의 항공엔진 및 기계계조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필리핀 최대 투자기관인 RSBS연금관리공단과 관련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항공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군과도 P3C대잠초계기 T56엔진의 창정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趙鏞鉉 기자>

NASA, 새로운 항공기 착륙기술 개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조

종사와 前 우주인 고든 풀러턴씨는 엔진과 신형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사용해 화물수송기를 착륙케 하는데 성공했다고 NASA측이 8월 30일 밝혔다.

NASA측이 항공기 착륙상의 "이정표"라고 표현하는 이번 착륙에서 조종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엔진통제장치를 사용했다.

이 엔진통제장치는 수압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케 하는데 사용한다.

NASA 측은 이 조종사가 지난 8월 29일 캘리포니아주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있는 드라이든 비행연구센터에서 항공기를 착륙시켰다면서 수압장치 고장으로 여러번 사고가 발생한 뒤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새 항공기 착륙술은 조종석에 있는 기존의 조종사 통제장치 외에 항공기의 비행통제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다.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도입

산불 감시용 경비행기가 처음 도입됐다.

산림청은 8월 15일 산불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공중지휘로 산불

의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감시용 4인승 경비행기를 도입, 올 가을부터 산림감시현장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경비행기 도입은 매년 전국에서 2백20여건의 산불이 발생, 7백55ha의 산림자원이 소실됨에 따라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헬기 연차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경비행기는 무니항공기계작사에서 38만1천달러(2억9천1백만원)에 도입한 것으로 길이 8.15m, 높이 2.54m, 순항속도 시속 3백52km, 체공시간 6-7시간, 이륙중량 1천5백28kg이다.

산림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모두 22대로 산불진화 및 산림병해충 항공 방제업무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번 도입된 경비행기는 공중감시업무를 주로 맡아 상호긴밀한 통신연락과 함께 공중지휘업무를 수행하게 돼 산불의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체계를 구축,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미연방항공국, JAL의 미항공기정비면허취소

일본항공(JAL)은 미국 항공기에 대해 무허가 정비를 해왔다는

이유로 미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미국 항공기에 대한 정비업무 허가를 최소당했다고 FAA 당국자들이 8월 16일 밝혔다.

FAA는 지난 8월 10일자 의 이서한에서 JAL 정비시설들이 허가받은 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업자에게 하청까지 주고 버려야할 부품을 재사용했으며 허가없는 업자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정비종사자들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항공업계 해외판매 총력

해외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러시아 항공업계가 자국산항공기의 해외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최대 항공기 생산·수출국이었던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전통적 수출지역인 동구권은 물론 아랍, 아프리카등에의 판로가 막혀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러시아 항공업계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키 위해 신형항공기를 개발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과 기술이전등의 조건을 내걸고 국내외시장에 대한 관측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성이 큰 동남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러시아항공업계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등에 각종 호조건을 내걸며 미소작전을 펴고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미그29 전투기 18대를 판 러시아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도 미그29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공략중이다.

또 러시아항공업계는 인도가 최근 수호이 30전폭기의 합작생산에 관심을 표명하고 파키스탄도 같은 기종에 대한 흥미를 표시하자 한층 고무돼 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최근 보이지 않는 미그전투기를 개발했으며 SU32FN 전방전폭기, YAK141 수직이착륙전투기, KA52전투헬기등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간여객기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안전상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을 외국사와 합작으로 생산키로 하는 한편 새로운 개량형 항공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 리빈스키에 모토티사는 미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일류신86 민간여객기용 엔진을 합작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프라트 피트니 클리모프사는 RK6엔진을 올해안에 생산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아비아프리보르사는 독일 다이플러 벤츠 에로스페이스와 함께 민항기용 항로 및 비행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투플레프와 일류신 항공기제작사들은 또 국내용민항기로 TV334 중형항공기와 IL76MF기등을 각각 개발하는등 국내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항공기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사들, 신형 전투기 공개

러시아 항공기 제작회사들은 8월 22일 모스크바 인근 주코프스키에서 개최된 모스크바 국제에어쇼에서 최신에 지상공격용 제트기와 헬리콥터 등 10종의 전투기를 공개했다.

이번 에어쇼를 지휘하고 있는 빅토르 글루키코는 "이번에 공개되는 러시아제 항공기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수호이사의 SU-32 FM 지상공격용제트기"라며 "이 제트기는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인승 전폭기인 SU-32기는 2백50km 떨어진 곳에서 유도 미사일로 지상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최대속력은 마하 18이다.

또 카모프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2인승의 KA-52 공격용 헬기 모델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인 이 헬기는 시속 90km로 후진할 수 있고, 측면으로는 시속 80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비유도 미사일과 2백80발의 기관포를 포함, 2T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야코블레프사가 선보인 1인승 YAK-14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로 지난 87년 첫선을 보였다가 곧바로 퇴장했던 기종이다. 이회사의 설계 총괄 담당 알렉산데르 돈두코프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이 기종 생산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헬기 제작사인 밀사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지표면에서 5~15m 저공을 비행할 수 있는 신형 MI-28N기를 공개했다.

영 BAe, 벨기에항공으로부터 근거리 비행기수주

영국의 BAe는 벨기에 사베나 항공으로부터 근거리항공기 23기를 수주했다.

수주총액은 대략 5억-10억달러로, 근거리 항공기의 일괄수주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많다.

BAe가 수주한 것은 근거리 제트기 「RJ85」(82명 탑승가능)로 금년말까지 우선 4기, 남은 19기를 98년말까지 납품한다. BAe는 금년들어 사베나에 49.5%출자한 스위스항공으로부터 100석급 「RJ100」을 이미 12기 수주했다.

보잉사, 777-300 10대 수주

미 보잉사는 올 니폰 에어라인(All Nippon Airline)사로부터 10대의 보잉 777-300기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는 시가로 13억 달러에 달한다. 동 항공기는 길이가 2백 43 피트로 기존의 777-200기종에 비해 33 피트가 긴 것이 특징이다. 올 니폰사는 777-200 항공기를 18대 주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으나, 계획을 바꿔 777-300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중국 남방항공, B-777기 구입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과 일본의 다이이치칸교은행, 미쓰비시은행 등 3개은행은 중국 남방항공이 도입예정인 총액 2억9천만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의 최신에 여객기 B-777기의 항공기리스계약 주관사로 지명되었다고 8

월 12일 발표했다.

미국수출입은행이 리스계약의 파트너로서 중국공상은행을 고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 에어버스사, 1백 24석짜리 쌍발 A-319기 선보여

내용 유럽의 항공업계 컨소시엄인 에어버스사는 쌍발 엔진에 1백 24석을 갖춘 신형 A-319기를 선보였다. 에어버스사는 내년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2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동 항공기 27대를 주문받았다고 전했다.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사, MD-90 2대 추가주문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사(SAS)는 미국의 맥도날 더글라스사에 중거리 운항용 MD-90 항공기를 2대 추가 주문했다고 밝혔다. 총 8대의 MD-90 주문 가격은 3억 2천만달러에 달하며, 동 항공기를 유럽노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